

## 제 934차 OECD DAC 정례회의

### I. 회의개요

표제회의가 2011년 6월 30일 파리 OECD 본부에서 OECD 개발협력국 주최로 Brian Atwood DAC 의장, 당관 정진규 참사관을 비롯한 회원국 DAC 대표, 사무국 Jon Lomoy 국장, Stephen Groff 부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됨.

### II. 주요내용

- 사무국은 OECD의 3번째 다자원조보고서 초안을 회람하면서 전체적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바,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등은 동보고서는 현재 다자기구의 운영의 문제점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다자기구의 분절화(fragmentation)문제 개선효과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면서 각 다자기구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 함.
- 금번 3차 다자원조보고서는 다자기구의 원조보고 각 공여국의 다자기구 정책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음. 특히 DAC 회원국의 다자기구 지원정책에도 중점을 두고 있음. 전반적 증가추세이며 2099년 사상최대 기록 함. 다자개발원조에 있어서 DAC회원국 이외의 국가(BRICs를 포함한 신흥국)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미국은 다자원조보고서 발간을 통해 DAC과 Non DAC 공여국(기관)에 대해 기준(reference points)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개별 국가 내에서 개발원조와 관련되어 있는 부처들이 동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다자기구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함.
- 세계은행은 개발 사업에 대한 Performance evaluation, sharing information은 은행의 당연한 업무라고 강조하고 세계은행 웹사이트에서도 많은 자료와 정보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고 많은 공여국 및 수원국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줄 것을 요청 함.
- 우리 측은 다자원보고서 발간의 메인 메시지는 다자기구의 효과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서 다를 전체적인 원조/개발 효과성 논의에 동 보고서의 핵심내용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 함.
- 사무국은 OECD 개발전략(각료이사회 합의사항)에 대해 설명함.(OECD 개발전략 관련 우선순위 분야, 선정기준, 개발정책정합성(PCD), 파리선언/아크라행동계획의 역할, DAC의 역할 등을 기여분야로 제시함.
-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DAC의 OECD 개발전략에 대한 기여가 핵심적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데 동의를 표시하면서도 DAC과 개발센터(DC)간 보다 명확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양 기관의 기여분야와 기여내용에 관한 보다 실질적인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 함.